



정읍시, 축사화재 예방 전기안전 점검 지원 추진

정읍시가 축사 화재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축사 전기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돈·양계 농가 6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직접 현장 수행을 나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전로의 절연 저항·열화 상태 측정을 비롯해 인입구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시스템 등의 안전성 확인이다. 또한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분전반 내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양돈 및 양계 농가 중 소방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 위험 등급이 낮은 D등급과 C등급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경찰서, 가시적 교통안전활동 강화 교통캠페인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 장계파출소는 지난 24일, 지역 사회와의 협력치안활동 일환으로, 화물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장계사거리에서 캠페인 및 관내 주민들을 직접 방문 홍보를 실시했다. 최근 봄 행락철·농번기 등 야외활동 증가에 비례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가시적인 경찰 안전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계파출소 경찰관과 장계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새마을금고 직원 등 총 30명이 참여했으며, 장계사거리에서 시작하여 장계농협, 장계초 주변 일일이 방문하고, 통행 차량 운전자에게 전단배부, 안전운행 설명 현장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서, 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 23일 야간 시간대 장수군 일원에서 농번기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취소 1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교통 사망사고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졌다. 장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안전띠 미착용 △화물차량 승차인원 초과 △화물차 적재위반 및 적재함 승차행위 등 교통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병원, 지역 의료기관 협력 강화

도내 29개 병원 실무자 참여... 전문의뢰·환자 회송 시스템 개선 논의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진료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전북대병원 측은 지난 24일 원광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2026년 전북권역 인접지역 진료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의뢰·회송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완산홀에서 열렸으며,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 전북권역과 인접지역 29개 병원에서 진료협력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전북권역 진료협력병원 현황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은 외래 및 입원 환자의 회송 수용 여부와 응급환자 회송 과정의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또한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과 병원별 역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 서식 공동 개발·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진흥용 진료협력센터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지역 의료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전문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협력을 확대해 도민들에게 완결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사·진안군, 청년농 중심 미래농업 기반 구축 '맞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협약... 486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진안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양 기관은 최근 협약을 맺고 진안군 마령면 일대에 추진되는 '진안고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486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146억 원과 지방비 340억 원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비롯해 교육·연구센터와 육묘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과 실습, 기술 지원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 기관은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과 저탄소에너지 공동안용시설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긴밀



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스마트농업 확대 관련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로, 청년농 지원과 스마트농업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안군을 포함해 장수군, 김제시, 무주군, 남원시 등 전북 5개 시·군과 총 1,938억 원 규모의 관련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효사랑요양병원서 합동소방훈련

남원소방서는 최근, 식정 119안전센터와 남원 효사랑요양병원(향교동)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을 위해 합동소방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훈련에서는 △소방시설 송수구 위치 확인 △소방차량 최적 부서 위치 및 인근 소화전 파악 △임시 응급의료소 설치 위치 점검 등 소방 대원들의 신속한 진입 및 구조 활동을 위한 현지 적응 훈련이 진행되었다. 특히 병원 임직원들이 소방호스를 직접 전개해 보고, 모포를 활용한 환자 대피 등 실전과 같은 대피 훈련을 하며 재난 대응 행동 요령을 익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봉읍,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종표)는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5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건강교실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장에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간이검사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만성질환 관리와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지정...수성동 '샘골약국'

정읍시보건소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성동 소재 샘골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샘골약국은 연중무휴로 저녁 9시부터 지정까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복약 지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단, 약국 사정에 따라 매월 1~2회 자율휴무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읍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